

깨침의 글귀로 밝은 가정을

보성 월림사, 가훈결기법회

산골 벽지마을에서 '가훈결기 특별법회'가 봉행됐다. 보성 월림사(주지 지봉)는 3월 29일 '한가정 가훈결기 및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불교문화를 선보였다.

'노래하는 보현 스님'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법회에는 하승안 보성군수와 지역 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음악회에 앞서 주지 지봉 스님은 인사말에서 "가훈은 가정뿐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며 "농촌 사회가 수난 받고 있는 이때 가정지킴이 일환으로 불교성구가 적힌 가훈결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당에는 '천사불어일행(千思不如一行, 천번 생각은 한번의 행만 못하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등의 글귀가 적힌 가훈이 전시됐다.

초하루법회를 겸해 열린 이날 작은 음악회에서는 출가 전 가수로 활동했던 보현 스님이 출연해 가요와 염불송 등을 노래했다. 또한 전 우담바라 악단장 월현 스님이 하모니카, 만도린 연주로 참가자들의 흥을 돋구었다.

가훈족자를 구입한 양숙자(보성읍) 보살은 "평소 집안에 좋은 글귀를 걸어두고 싶었는데 스님 글씨를 받게됐다"며 기뻐했다.



보성 월림사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해 '한가정 가훈결기 및 작은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가훈결기 법회를 봉행한 지봉 스님은 "가훈 판매 수익금은 보현 스님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부처님마음' 후원금으로 전달한다"며 "가정도 살리고 불교복지시설도 후원하는 가훈결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장 하류에 자리한 월림사는 인근 전란 때 폐사되어 근근이 명맥만 이어오던 10년 전 지봉 스님이 주석하면서 가람을 중창했다. 경내에는 고려 후기 조성된 높이 9m 5층석탑(유형문화재 141호)이 있다.

글·사진/보성=이준엽 기자

혜국 스님 '간화선을 말한다'

4월8일 '빛고을 특강'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혜국 스님이 빛고을 광주 시민들에게 한국불교의 정수인 간화선에 대해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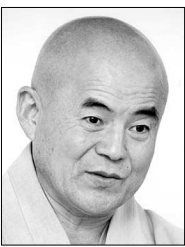
혜국 스님(사진)은 4월 8일(오후3시) 광주 KT 정보문화센터 대강당에서 '21세기 현대인, 간화선을 말한다'라 주제로 초청강연을 펼친다.

이번 강연은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향)가 부처님오신날에 앞서 마련한 특별법회.

특히 이번 강좌는 지난해 성공리에 끝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강좌를 계승하는 자리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광주 시민과 대중강좌를 통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혜국 스님은 "한국불교의 정수인 간화선을 소개하고 진정한 주인으로 사는 지혜를 들려주겠다"고 밝혔다.

혜국 스님은 1961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은사로 제를 수지하고 대승사, 봉암사, 칠발사 등에서 정진했다. 69년 해인사에서 10만매 정진 뒤 세 손가락을 연비했으며, 도솔암에서 2년여동안 생식하며 장좌불와 수행을 했다. 현재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 제주 남국선원에서 눈푸른 남자를 제접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학천사(주지 지봉)는 3월 25일 8년여에 걸친 불사를 마무리하고 낙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 선암사 강원학인, 각 사암 스님과 민주당 최인기 의원, 이영남 화순군수, 전일만 화순군의회 등 기관장, 불자 등 500여명이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역사적으로 불교는 호국안민하는 사상이자 생활이념이었다"며 "천수천안 관음도량인 학천사를 중심으로 지역민이 합심 할 때 화순은 물론 인류가 안심명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난타 존자로 분하고, 천동사 스님들이 환송하는 스님으로 직접 출연한다. 불갑사와 영광군은 이번 재현법회를 위해 지난 2월 현지를 답사했다.

불갑사는 오는 5월 13일 영광 범성포 마라나타사(사진)에서 마라나타 존자 일행이 백제로 오는 과정을 재현하는 법회를 연다.

한편 영광군은 마라나타 존자가 도착한 법성포를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로 선포하고, 1999년부터 성역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성역화사업은 1만3000여평 부지에 18m 크기의 사면불상과 부용루, 만불전, 불교문화재 전시관, 기념광장, 팔각정, 탑원 등이 조성되고 있다.

이준엽 기자

화순 학천사 낙성법회 "소외이웃 함께하는 도량"

천불천탑의 고장 화순에 관음도량 학천사가 창건됐다.

백제불교 최초 전래모습 재현

中 천동사서 고불식·영파 포구서 출항 의식

마라나타 존자가 백제에 불교를 전하기 위해 떠나는 고불법회가 1600년 만에 중국 현지에서 재현된다.

영광 불갑사(주지 만당)와 영광군은 4월 7일 중국 절강성 천동사에서 백제불교 최초전래 재현법회를 봉행한다.

이를 위해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과 김봉열 영광군수 등 관계자들이 5일 중국으로 떠난다.



이날 양국 스님과 재현법회 관계자들은 천동사 대웅전에서 '백제에 불교를 전하기 위해 떠나는 것'을 선포하는 고불식을 갖고, 영파 포구로 나가 출항하는 의식을 재현한다. 고불식에 앞서 백제로 보내는 불상과 경전을 봉안하는 법회도 재현한다.

이번 행사에는 화계사 대승 스님이 마라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섬 속에 절이 있네

완도 해동사

우리나라에서 자생약초가 가장 많은 완도 약산. 이곳에 약사여래 도량이 들어선다.

삼문산 해동사(주지 일광)가 4월 22일 9년간의 도량건립불사를 회향하고 낙성법회를 봉행하는 것이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도 참가해 '섬 속의 부처님 도량' 탄생을 축하한다.

완도의 부속도서인 약산은 '섬 속의 섬'이다. 또한하나의 섬 고금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해동사는 가사리 해수욕장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바닷가 기슭에 자리해 있다.

불전, 산신각 등의 전각이 들어섰다. 천불전에는 석가모니, 비로자나, 아미타불을 비롯해 관세음, 지장보살 등 불보살이 각각 다른 수인과 표정을 하고 있다. 아울러 참배객들을 위해 150명이 함께 정진할 수 있는 요사채, 공양간도 마련했다. 해동사를 찾는 이는 누구나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들어서 범종을 조성했고, 24자(7m20cm) 크기의 약사여래 석불을 조성했다. 이로써 타종파와 점안법회를 겸해 공적으로 해동사가 낙성하게 됐다.

해동사 범종문을 열어야하면 바다



9년간의 도량건립불사를 4월22일 회향하는 완도 해동사 전경.

건강 잃은 이들의 희망터

자생약초 최다생산지에 자리한 약사여래도량

가사리는 불교와 인연 있는 땅이다. 옛날, 약산도 삼문산에 스님이 한번 수행하고 있었다. 어느날 스님은 바닷가 바위에 가사를 놓고 탁발을 나갔다. 돌아와보니 가사가 사라지고 없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된 스님이 마을을 떠났다.

스님의 수행만으로도 편안했던 바닷가 마을이 슬럼거렸다. 스님은 떠나기에 앞서 마을이름을 '가사리'라 명명했다. 오늘날의 가사리 마을과 가사리 해수욕장에 얽힌 전설이다.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이곳에 다시 스님이 오게 됐다.

9년 전, 우연히 가사리와 인연을 맺은 일광 스님이 건강을 잃고 새로운 삶을 찾는 이들과 함께 천막을 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마음은 물론 육신의 눈'을 뜨게 하고자 했던 스님의 원력은 서서히 실현됐다. 20평 규모의 대웅전을 비롯해 천

가 한눈에 펼쳐 보인다. 이 바다 위로 떠오르는 일출이 장관이다. 해마다 연말에 열리는 해맞이 축하행사는 전국에 알려져 제법 유명세를 타고 있다.

또한 가사리 해수욕장 앞 바다에 떠있는 생일도는 마치 부처님이 누워계시는 듯 하여 신비함을 더해준다.

약산은 이름 그대로 삼지구엽초를 비롯 200여 종의 약초가 생산되는 땅이다. 그래서인지 몸이 불편한 중생들에게 좋은 터로 알려져 있다. 해동사는 간질환 기도까지 곁들일수 있어 새롭게 약산도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준엽 기자

▲참가하기: 해동사는 행정구역상 완도군이지만 가는 길은 김천명이 가깝고 편하다. (061)555-0879
간직 마량 선착장(06:00-21:00 20분 간격, 10분 소요) - 고급선착장에서 약산행 버스이용 - 당목삼거리 하차 걸어서 30분 거리

광주 불교 방송
BBS FM 89.7 MHz
www.kjbbbs.co.kr

현오스님의 꿈! 미래의 열쇠

왜 꿈을 그렇게 풀어야 하는가!

각 풀이마다 **왜?**를 설명한 책!

당신은 스스로 예언할 수 있다.

우리가 미해결사에 대해 고민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미래를 예측하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하나 방법이 없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미래를 예지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면 미래에 대한 열쇠를 갖고 대처하여 행복을 누릴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무엇인지 모를 어둠속에서 헤매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서문 중에서-

사상최초로 꿈꾸는 마음과 상징철리와 해몽의 비밀을 불교의 유식철학 이론으로 완전히 해결하다.



목차 제부 미래를 여는 창 꿈의 원리

- 1장. 꿈꾸는 마음의 구조와 기능
- 2장. 꿈의 상징원리
- 3장. 역사와 종교의 꿈
- 4장. 꿈과 최면술
- 5장. 마음을 수행한다

제2부 꿈의 상징과 해석

- 1장. 사람과 직업에 관련된 꿈
- 2장. 죽음과 시체, 장례와 제사의 상징
- 3장. 인체의 상징
- 4장. 배설물과 분비물의 상징
- 5장. 동물에 관한 상징
- 6장. 식물, 곡물, 경작의 상징
- 7장. 광물과 보석의 상징
- 8장. 색채, 시간과 날짜, 방향의 상징
- 9장. 돈과 문서 등의 상징
- 10장. 물, 샘, 호수, 강, 바다의 상징
- 11장. 불, 빛, 열에 관한 상징
- 12장. 산과 들, 고향, 도시의 상징
- 13장. 하늘, 천체, 기상학의 상징
- 14장. 운송수단, 전화, 우편에 관한 상징
- 15장. 집과 관공서의 상징
- 16장. 서적, 문자, 도장, 숫자의 상징
- 17장. 전쟁, 병기, 깃발의 상징
- 18장. 질병, 의학, 약의 상징
- 19장. 의복, 치장 등 소지품의 상징
- 20장. 가구, 집기, 사무용품 등의 상징
- 21장. 음식과 음식 재료의 상징
- 22장. 운동, 오락, 예술의 상징
- 23장. 희노애락 등 감정의 상징
- 24장. 행동의 꿈 상징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다. 그 꿈의 의미를 알 수는 없을까? 이 책이 명쾌한 답을 줄 것이다.

< 꿈꾸는 마음과 상징해석 강의 >

대지 불교심리학 연구소 소장 현오스님이 직접 꿈꾸는 마음과 상징해석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상식반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시 30분
	교재비	13회 2만원원 교재포함
연구반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3시 30분
	교재비	13회 11만원원 교재포함
문의처	02) 576-1462	
주소	서울 강남구 도곡동 3호선 대명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근간- 꿈과 마음의 비밀(유식철학으로 밝힌다) >

현대 심리학을 전공한 류정수 선생과 현오스님의 공저로 불교의 유식철학과 서양심리학 이론으로 꿈과 마음의 비밀을 완전히 밝혀낸 꿈이론의 완결판!

신국판/ 519쪽/ 고급양장
값 20,000원

대유학당
2249-5630
홈페이지 : 대유학당